

사회적기업도 ‘창업’이다

연우와함께 사회적기업 설명회... 주먹구구식 해서는 실패 불 보듯

최근 불교계에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보시나 후원에 의존하는 수익구조를 대신할 기업형태이면서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 확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은 걸음마 수준이다. 인증조건은 물론 단순한 정부의 지원 아래 육성되는 복지사업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흔하고, 사회적기업을 통해 이익을 챙기겠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좋은날 사회적기업 전문특화사업단은 6월 21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불교계 사회적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류시문 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불교계 자산은 곧 중생의 자산이다. 사회적기업의 융성과 발전은 사회 통합, 불교계 통합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불교계 사회적기업을 적극 권장했다.

설명회는 이상근 연우와함께 대표가 ‘불교계 사회적기업’을, 윤종



(오른쪽부터)윤종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화지원팀장, 정성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화지원팀, 이상근 연우와함께 대표이사 사회적기업 설명회에서 질의에 응답을 하고 있다.

태 한국사회적기업 사업화 지원팀장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이 끝나자 80여 사회적기업 창업자, 예비 창업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불교계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막연함부터 속 시원히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도 무모한 도전으로 보일 수 있다” “지역사회와 융화 밀착돼 있으면 성공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답에 그치지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실질적인 창업 정보나 교계의 지원 등을 원했던 것이다.

대구 동화사 사회국장 정필 스님은 “사회적기업의 모델 제시, 방법론과 비전제시, 자료분석을 통한 설계,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불교자원연계 방안, 사찰수익구조 변화와 불교계 역할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의정부 용주사 주지 성오 스님은 “실무적인 테크닉과 효율적인 부분을 알고 싶었으나 많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기업 mim 김민지 대표도 “불교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설명회는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불교계 내에서 사회적기업 창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간 정보를 교류하면서 자연스러운 네트워크도 형성하는 소기의 성과와 함께 창업·교육·컨설팅 공동협업 등도 서둘러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상근 연우와함께 대표는 앞으로 “창업 희망자, 컨설턴트, 지역활동가, 사찰관계자, 자본가 등이 함께 모여 구체적인 사업 모델과 해결 방안을 스스로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원 부이사장은 “사회적기업이라 할지라도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은 불가능하다”며 기본적인 사업요건부터 갖춘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예산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회적기업 형태가 아니라도 산림청이나 행정자치부 등을 통한 적합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재원 부이사장은 “무조건 될 것이라는 기대, 빨리 만들겠다는 욕심은 버려야 한다. 공익에 우선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각 단체가 나름의 노력을 꾸준히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찬영 지원단장은 “일반 창업과 같이 뚜렷한 동기를 갖고 치열한 내부 논의를 통한 경영방식 등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근 기자

이상은 기자의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불자라고 해서 도와야 하나

불자가수 김흥국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MBC 라디오 ‘2시 만세’ 퇴출에 항의해 6월 17일 서울 여의도 MBC사옥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불자연예인을 감싸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오고갔다.

P씨는 한 일간지에 실린 가수 김흥국씨의 라디오 하차 항의의 삭발식 기사를 부루나에 링크하며 “불자가수 김흥국의 복귀를 축원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내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P씨는 “솔직한 심정으로 스님들께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탄원서를 쓰던가요. 불자가수 하나 못 구하면 우리도 좀 그런거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흥국씨가 연예인활동과 포교활동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K씨는 “제 생각은 좀 다릅니

다. 이름이 좀 알려진 사람으로서 정치권에 개입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풋볼 가수로서 만족을 했으면 합니다”고 댓글을 남겼다.

U씨는 “(김흥국씨는) 훌륭한 포교사니까 구명 해야지요. 만날 기회 있는 분들이 다음부터는 포교나 하라하고 포교사로 최선을 다하라 합니다. 흔탁한 정치판이 흥국씨 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결국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김흥국씨와) 만날 인연이 되면 이야기 할 겁니다”고 말했다.

김흥국씨는 4.27 재보선 당시 한나라당 유세 현장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MBC에서 6월 4일 방송 하차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내 정치적 성향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며 방송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2012 여수세계박람회 불교자원봉사자 모집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6월 29일까지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서 부처님의 자비나눔 실천을 함께할 불교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여수 신항일대에서 2012년 5월 12일~8월 12일 열린다.

보살행 실천에 함께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2012년 5월 12일 세계박람회 개막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내·외국인 중 10일 이상(주중10일 또는 주말8일) 자원봉사활동에 참가가 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참가자들에게는 유니폼 및 기념품, 소정의 실비가 지급되며 활동을 마친 후 우수자원봉사자 포상 등이 이뤄진다.

자원봉사 신청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mahayana.or.kr)에 있는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이메일(woeks48@chol.com)로 발송하면 된다. (02)723-5101 조동섭 기자

좋은 상담가 배출이 생명 지킨다

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 선업 스님



“자살은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다 죽이고, 마지막 막으로 자기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누군가와 연결고리만 있다고 생각해도 끔찍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선업 스님(사진)은 “기독교에서 이미 많은 자살예방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다. 불교계도 불교를 내세운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프로그램이 완성되려면 무엇보다 자살예방 전문 상담가를 배출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게 자살예방에 말 빠르게 대응하는 길이다”라며 “전문가를 양성해

양질의 프로그램만 만들어 내고, 현장에서 그 프로그램들로 실습이 된다면 1~2년 뒤엔 불교계도 선두에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살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교육을 받을 수 없다면, 상담에 관심 있는 신도들을 교육시켜 좋은 상담가를 배출시키는 것이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불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불교를 번성시키고 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업 스님은 “우리는 모두 한 송이 꽃과 같고 보석같은 존재”라며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고있는 분들이 있다면, 나라는 존재로서 이미 완전한 존재임을 잊지말라”고 당부했다. 이은정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식 태교법 강연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을 초청해서로 ‘내 모든 것을 주어도 모자란 아이에게’ 가족법회를 봉행했다.

성우 스님은 법회에서 태아를 위해 자비로운 마음으로 복덕을 쌓는 보시바라미, 거저말이나 험한 약구를 하지 않으며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지계바라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선정 바라미 등 불교적 태교법을 설명했다.

성우 스님은 “육바라미 실천을 통한 태교는 부모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함께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이주민 불자들이 배구대회를 통해 화합을 도모했다.

공 하나로 한마음 이뤄낸다

제1회 포교원장배 이주민 배구 큰 잔치

불교계 이주민 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이주민 불자들의 화합을 위해 마련된 ‘제1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배 이주민 배구 큰 잔치’가 뜨거운 열기 속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마하이주민지원단 체험의회와 불교생활의례문화원

공동주관으로 6월 19일 양천구민체육센터 대체육관에서 열렸다.

9개국 10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벌인 결과 캄보디아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캄보디아는 양천구 배구연합회와의 결승전에서 1세트를 먼저 내주고 수세에 몰렸으

나 2, 3세트를 연속으로 따내면서 세트스코어 2대 1로 첫 대회 우승의 기쁨을 안았다. 점전 끝에 2위를 차지한 양천구배구연합회는 상금 중 일부를 이주민 불자들의 발전을 위한 격려금으로 전달했다.

응원상 부문에서는 스리랑카가 1위를 차지하고, 2위 태국, 3위는 방글라데시가 각각 차지했다. 각 나라 이주민들은 소속팀 경기가 진행될 때마다 열렬한 응원전을 펼쳤다.

포교원장 해송 스님은 “조계종은 이주민 불자들을 위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주민 불자들이 용기를 잃지 말고 생활활동을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대회장인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지관 스님은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인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아시아 불자들을 향한 한국인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이 샘 솟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규범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이사장은 “다함께 배구를 즐기면서 동질감을 갖기 바란다. 부처님의 율화정신에서 이번 대회의 의미를 찾자”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차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부교육원

창원 055-543-6155 호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산 051-441-0111
울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구 053-566-1116 해운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단기출가자 및 행자 모집

- 기간 : 일주일 이상 자유, 전액무료
- 대상 : 만 50세 미만 남자, 출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행자 생활에 준하며 사찰의 기도, 참선, 공부, 율력 등 모든 수행에 동참
- 단체 시간외 1인 1실, 숙박
- 수련 후 바로 출가할 경우 모든 뒷바라지
- 대구권결과 감포 무문관 선방에서수행

※ 행자(예비스님)모집합니다.
문의 : 053)474-8228, 010-2488-8228

무문관 재가수행자 및 스님 모집

- 입방 후 문 폐쇄, 하루 한끼 공양 제공
- 연령 제한 없음. 남,녀 선착순
- 기간 : 보름이상 자유
- 입방날짜는 개인별로 함
- 동참금 있음
- 문의 : 054)753-8228

※ 감포무문관에서 동안거 입방하실 스님 모집합니다.
• 대상 : 법랍 10년 이상인 비구, 비구니
• 선착순 모집
• 문의 : 010-2488-8228

회주 우학스님의 신간
“하루 한가지 마음공부법”, “감사하고 사랑하며”

쾌적한 법당형 극락 납골 봉안당
문의 : 053)474-8228, 010-6296-0108